KB증권

FIRST TO THE MARKET

더 많은 리포트 보기

2025년 9월 15일

조선/기계/방산 Analyst 정동익
newday@kbfg.com

조선산업

올해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YoY 50.8% 감소

8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YoY 64.8% 감소한 244만 CGT 기록

— 8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82척으로 전년동월 252척 대비 67.5% 감소. CGT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64.8% 감소한 244만 CGT를 기록

— 선종별로는 LNG선의 경우 작년 8월에는 발주가 없었으나 올해는 8척이 발주됨. 하지만 Bulker 95.7%, Container선 71.2%, Tanker 48.0% 등 대부분의 선종이 크게 감소했으며, LPG선은 발주가 없었음.

— 국가별로는 한국 +580.7%, 중국 -78.7%, 일본 -39.8% 기록 (CGT 기준)

올해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YoY 50.8% 감소한 2,707만 CGT 기록

— 이에 따라 올해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총 938척으로 전년동기 2,255척 대비 58.4% 감소. CGT 기준으로는 50.8% 감소한 2,707만 CGT 기록

— 선종별로는 Container선만 0.2% 증가했으며, 그 외 LPG선 77.3%, Tanker 71.8%, LNG선 70.8%, Bulker 70.4% 감소

— 국가별로는 한국 -29.1%, 중국 -59.7%, 일본 -53.9% 기록해 한국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음

한국 M/S는 지난해 15.2%에서 올해 21.8%로 상승

— 이에 따라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5.2%에서 올해 21.8%로 상승 (CGT기준)

— 중국은 지난해 70.3%에서 올해 57.5%로 하락했으며, 일본도 6.3%에서 5.9%로 하락

— 한국 조선사들의 2025년 신규수주 기준 선종별 믹스는 Container선 48.8%, Tanker 22.5% 등

— 중국 조선사들의 경우 Container선 58.7%, Bulker 12.4%, Tanker 6.6% 등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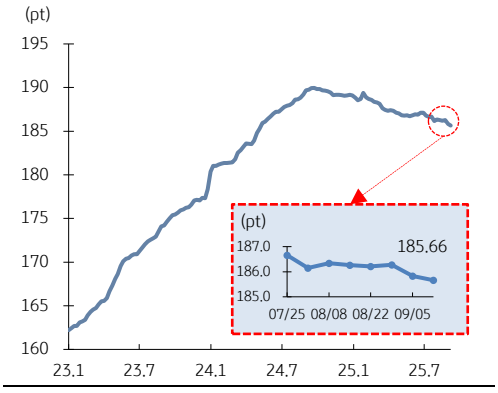
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.85% 하락

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최근 (9월 12일) 직전 주 대비 0.09%p 하락한 185.66pt 기록

— 이에 따라 2024년 말 대비 달러선가 하락률은 1.85%를 기록 중이며, 환율 변동을 반영한 원화기준 선가는 7.62%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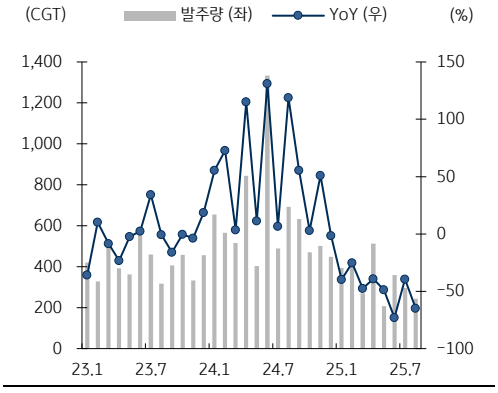
— 선종별로는 지난해 말 대비 PCTC 6.7%, MR Tanker 6.7%, Suezmax Tanker 5.0% 등 하락

클락슨 신조선가지수 추이 (주간)



자료: Clarksons, KB증권

글로벌 월별 발주량 추이 (CGT 기준)



자료: Clarksons, KB증권

투자자 고지 사항
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HD현대미포]의 인수 · 합병의 중개 · 주선 · 대리 ·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[HD현대중공업]의 인수 · 합병의 중개 · 주선 · 대리 ·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,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
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,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